

문 의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과 장 전현진 042-481-5460 서기관 양기성 042-481-513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년 9월 6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9월 5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생생한 미래 IP 활용 전략! 놓치지 마세요”

- PATINEX 2018(제14회 국제특허정보박람회) 개최 -

특허청은 혁신기업의 특허정보 활용 전략을 공유하고 IP(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9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이틀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서울시 강남구)에서 ‘PATINEX 2018 (국제특허정보박람회)’을 개최한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PATINEX(PATent INformation EXpo)는 전 세계 특허정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와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로 구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특허정보 박람회다.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펼쳐지는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전략이 집중 논의된다.

먼저, 행사 첫째 날인 9월 6일에는 자율주행 관련 특허출원 선두주자인 보쉬(Bosch)와 블록체인, 인공지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오라클(Oracle) 등의 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활용 전략에 대한 강연과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둘째 날인 9월 7일에는 중국의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Tencen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용한 출원 및 심사 전략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AI 창작물 등에 대한 분쟁 동향, 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도 이어진다.

강연과 별도로, 행사 참석자들은 전시부스에 마련되어 있는 웹스,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위트인텔리전스, 엘튜브, 빈닷컴 등 스타트업을 포함한 국내외 20여개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과 기관들의 다채로운 특허정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으며, 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 특허청) 및 WIPO가 운영하는 전시부스와 워크숍을 통해 주요 특허청의 특허정보 활용 정책도 살펴볼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는 논문이나 다른 기술 문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최신 기술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의 보고”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국내외 혁신 기업의 선진 특허정보 활용 전략을 터득하고 현업에 적용할 수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PATINEX 2018 개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행사 홈페이지(www.kipi.or.kr/patinex/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양기성 서기관(☎ 042-481-51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